



조선 강산

9

주제 109(2020)
루체 제373호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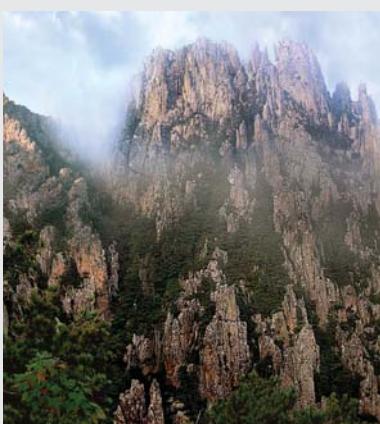
차례



표지: 열광의 환호
주체 107(2018)년 촬영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공민된 궁지와 기쁨을 안고 당기와 공화국기를 흔들며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터치는 인민들이다.

본사기자 방은심



뒤표지: 금강산의 만물상

편집: 최은혁

일화

제일 중대한 문제	2
-----------	---

좌담회

교원의 자질은 나카의 전진속도	4
------------------	---

사법교육의 질을 높여	6
-------------	---

원격교육의 실용화, 과학화를 다그쳐	8
---------------------	---

단상

해마다 가꽃처럼	9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혈전의 준비	10
--------	----

수재민들을 환경에 암으시고	12
----------------	----

벼이삭 설레임소리	14
-----------	----

반향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	15
----------------	----

깊고도 억센 뿌리를 가진 당	16
-----------------	----

로동자대의원	17
--------	----

카체의 생선토래를 구축하여	18
----------------	----

《민들레》학습장에 비낀 마음	20
-----------------	----

푸른 숲을 가꿔가는 사람들	22
----------------	----

《흰구름》개발자들	24
-----------	----

장현사화 《동의보감》을 쓴 교수	26
-------------------	----

유리그림들	26
-------	----

12개의 대학졸업증	28
------------	----

문답

사회적 관심이 높은 송마운동	29
-----------------	----

첫 녀자국제레스リング십판원	30
----------------	----

홈페이지 《조선료리》의 주인들	32
------------------	----

우리의 생활 34

고향소식

래일을 마중가는 사람들 36

조국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뒤를 이어 38

편지

혈육의 정을 나눌 그날을 기다리며 40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41

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병원 42

절세위인들과 맷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44

다함없는 흡모의 마음을 알아 45

정을 기울이는 동포부부 46

판이한 태도 48

조국의 각 도 특산물을 (20) 49

민족의 향기

알록반죽자기 50

력사인물

참대화가 류덕장 51

지명유래

평양의 만경대 52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6) 53

영등-옹알동굴 54

야화

진실한 스승 56

상식

《왕오천축국전》 24

민족음식 만두 41

색갈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 52

조선속담 (결단성) 25

유모아

꽃밭에 물주기 28



12



18



33



36



41



55

제일 중대한 문제

한번 보여주는것이 낫다

주체 47(1958)년 7월 창성군 약수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실험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지난해에 학교를 찾으신 그이께서 바로 이 실험실에서 우리는 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열번 가르치는것보다 한번 보여주는것이 훨씬 낫다고 가르쳐 주시였던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풍발전소와 구성방직공장을 구경시키도록 하라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견학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이 많은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여왔다.

창성군 약수중학교를 다녀가신 이튿날 아침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는데 이바지될수 있는 악새도 보내주시였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교원들은 동물표본이며 실험실습기구와 직판물들을 만들어 교수에 활용하였다.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주체 73(1984)년 4월 28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평양제1고등중

학교(당시)를 찾으시였다.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이 학교를 본보기로 하여 고등중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물리실험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10여개의 실험대우에 놓여 있는 증기기관모형이며 력학기구들과 천평 등 실험기구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시였다.

화학실험실에 들리시여서는 집은 기초를 잘하여야 높이 올려지울수 있고 상부구조도 든든한 토대우에 발을 붙여야 생명력이 있는것처럼 사람도 어린시절부터 기초학문을 잘 닦아야 장차 훌륭한 과학자, 발명가가 되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 할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등중학교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새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제일 강한 때

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개척하려는 탐구심이 왕성한 때도 고등중학교 시기이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도 고등중학교 시기에 그 기초가 닦아진다고 하시였다.

반드시 주어야 할 교육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 107(2018)년 1월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은 주체 107(2018)년 1월 16일이였다.

이날 어머니교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벽면에 게시된 직판판들을 유심히 여겨보시였다.

학장은 그이께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쓰는 모든 세간들을 자녀교육교양에 리용하는 방

법, 학부형 회의를 하는 방법, 원아교육방법, 원아들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주는 방법을 파악 교육과정안에 반영하여 배워준다는데 대해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가정환경을 모의하여 꾸려놓은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배워준

다는게 이것은 필수적인 교육이다, 이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서 평양초등학원 교원으로 배치되어가는 대상들이 있는것만큼 이런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교원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부모가 없는 원아들에게 있어서 학원과 교원, 동무들은

그대로 집이고 부모이며 친형제로 되는것이다. 하기에 애육원이나 초등학원으로 배치되어가는 교원들은 원아들이 친어머니처럼 따를수 있도록 혈육의 정을 지녀야 하며 가정적 환경에서 원아들을 교육교양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뜻이였다.

본사기자 연 옥

교원의 자질은 나라의 전진 속도

김원희: 교육위원회 부국장

한이훈: 평양시 교수강습소 소장

립현옥: 동평양제1중학교 교장

윤현희: 평양교원대학부속 보통강구역 세거리소학교 교장

엄향심: 본사기자



김원희



한이훈



립현옥



윤현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교육부문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교육부문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교육에 말기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말아줄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밑에 나라의 교육 수준을 빠른 기간에 발전된 수준에 확고히 옮겨 세우기 위한 사업들이 어디서나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김원희: 예. 지금 교육중시가 국풍으로 되여 전국각지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해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에서 교육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교육위원회 보통교육국에서는 학생들을 심도있는 전문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제2차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강령을 깊이있게 작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교원들의 지식수준과 교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원격재교육과 강습도 널리 조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시범적으로 소학교 높은 학년에서부터 과목담임제를 실시하고 여러가지 과목의 소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전국각지에 자기 지방의 경제지리

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라 교육할수 있는 19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을 더 내왔습니다.

한이훈: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기본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번듯한 교사가 있고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져있다고 해도 교원들의 자질이 높지 못하면 학생들이 인재로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자질이자 교육의 질이고 학생들의 실력이며 나라의 전진속도라고 말하는것입니다.

각지의 교원들은 나라의 전진속도가 교원들의 자질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습소에서는 현직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에 힘을 넣고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의 생신주기가 빨라지면서 재교육문제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올해에만도 유치원,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원격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원들은 원격재교육기간 지난 시기의 지식전수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창조적사고가 위주로 되는 능력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물음들을 제기하고 착상도 많이 하였습니다.

강습소의 지도교원들은 현지에 나가 교원들의 의견을 중시하여 교수설계도 진행하며 다양한 교수방법들이 많이 창조되도록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이 나날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집단적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형제산구역 서룡고급중학교 수학분과 교원들이 모범을 보이였습니다. 이들은 현대과학기술을 리

용한 새 교수방법창조가 매우 어렵다는 수학과목에서 10여가지의 교수방법을 창안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 인식능력을 높이고 수업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양제4소학교, 락랑구역 승리소학교, 대동강구역 문수초급중학교와 강동군 명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들도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교수수단, 수법들을 부단히 개선하였습니다.

기자: 예. 저도 교육단위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실력경쟁의 된바람이 부는 들끓는 교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수재양성단위들인 1중학교들에서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알리였습니다.

립현옥: 그렇습니다. 우리 동평양제1중학교에서는 다학과종합교육형식인 STEM교육을 받아들이고 수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업으로 《생물질에 의한 전기생산》을 들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수학, 물리, 화학, 정보기술, 전자공학, 3차원설계기술, 3차원인쇄기술, 환경과학, 외국어, 심리학 등 여러 학과목의 지식을 호상련관속에 종합적으로 배우고 활용할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토론과 론쟁의 방법을 위주로 탐구활동을 벌리면서 자체로 학습목표를 제기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명해나가는 새로운 시범수업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외활동시간에 학생들에게 로보트와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주며 그것을 호상결합시키고 활용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범수업 《인공지능로보트의 조립과 조종》도 창조하였습니다. 학생

들은 높은 수준의 선추적로보트를 조립하고 조종프로그램을 작성해보면서 로보트공학의 기초와 인공지능기술의 원리를 알게 되고 각종 수감요소들과 전자회로의 구성방법을 배우며 성공에로 가는 방법론을 체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방법들은 창덕학교, 김정숙제1중학교, 신의주제1중학교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창조되었습니다.

윤현희: 우리 소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초등교육을 맡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종합교육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국어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어, 수학, 음악 등 여러 과목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수 있게 교육하여 학생들이 책속의 막힌 사고로부터 열려진 사고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후에는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기지들에도 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산, 수학, 속독, 외국어, 글짓기를 비롯한 20여개의 소조에서 재능을 꽂펴우고있습니다. 소조는 한명의 학생이 두개를 선택할수도 있고 시간제로 소조를 엎바꾸어가면서 배울수도 있습니다.

김원희: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사업이 교육단위들마다 경쟁적으로 활발히 벌어져 전국교육과학성과전시회, 전국교육과학토론회 등이 열리고있으며 교육과학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널리 일반화되고있습니다.

기자: 전사회적으로 세차게 일어번지는 교육경쟁열풍속에 교육의 질제고가 추진되어 조국의 교육강국건설은 더 빨리 다그쳐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범교육의 질을 높여

김철주사범대학은 평양시안의 초급, 고급중학교원들을 양성하는 사범교육기관이다.

주체35(1946)년 10월 1일에 창립된 대학은 10여개의 학부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도대를 갖추고 수많은 교원들을 양성하였다. 그 과정에 대학은 사범대학부문에서 권위있고 공로있는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최근년간 대학에서는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맞게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 사범교육의 질을 한단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목을 끄는것은 교원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교수수단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은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나라 교육내용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실험기구와 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이 과정에 대학은 70여종의 현대적인 실험기구와 장치를 개발하였고 80여건의 새 교수방법을 내놓았다.

새로운 교수수단과 방법들이 교수에 도입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도 높아지게 되었다.

모의프로그램과 3차원다매체를 이용한 실험

기구와 장치들은 교수에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학생들의 원리인식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수학부 교원 선우철준은 『학생들은 각종 연시기구와 실험장치들을 통해 토론과 론쟁을 거듭하면서 방법론을 찾게 된다. 이 과정은 곧 학생들이 교수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였다.

교원들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들이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속에서도 교수수단과 방법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열풍이 일었다.

물리학부의 학생들은 교원연구개발조에 인입되어 주행, 경로탐색, 회피, 무선조종식로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STEM교육방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쌓았다.

사회, 예능파독에서도 3차원다매체편집물과 증강현실기술을 이용한 교수방법들을 널리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오르게 되었다.

수학부 학생들은 제41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램 아시아평양지역경연에서 우승하였으며 해마다 진행하는 전국대학생외국어경연(사범대학부류)들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창조된 새 교수방법들은 대학교수에



서뿐아니라 전국의 중학교들과 사범교육기관들에서 실효를 거두었다.

대학에서 창안한 기상정보종합측정기와 이동식립체영상가상현시기, 다기능교탁, 굴렁선성질보임기구를 비롯한 40여종의 현대적인 실험기구와 장치들, 600여건의 교육지원프로그램, 20여건의 교수방법들은 전국의 중등교육기관들에 일반화되었다.

지난해 이곳 교원들은 전국의 100여개의 교육단위들에 나가 시범교육을 진행하였다.

시범교육을 본 많은 교원들이 지난 시기의 도식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들이 실지 체험과 자체탐구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독특하고 효과가 뚜렷한

교수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성과로 대학은 지난해 20여건의 교육과학성과등록증과 50여건의 새 교수방법등록증을 수여받았으며 모범교수자대렬도 들어났다.

주정실학장은 말하였다.

『교원양성은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원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교육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나갈 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원격교육의 실용화, 과학화를 다그쳐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원격교육의 실용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고 있다.

최근시기 그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적실한 지식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하여 학파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과정안을 작성한 원격교육강령을 내놓았다.

대학에서 진행하던 종전의 원격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학부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 토론을 거듭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교육강령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학부에서 내놓은 교수방법 역시 매우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론과 실험을 결부하여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가상교실환경에서 가상학생이 제기하는 질문

에 대답하는 방법, 교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들이 토론을 하여 도출해낸 결과를 놓고 교원은 그에 결론을 주는 토론식 교수방법 등이 그 실제로 된다.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망을 통하여 강의를 받은 즉시에 시험을 치게 한 다음 그들의 인식정형을 해하고 부족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자동적으로 분석한 후 필요한 학습자료를 제공해주는 과학적인 교수관리체계를 연구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교내원격강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손전화기, 판형컴퓨터 등으로 강의를 받고 학습하게 한 다음 학습정형을 평가해주는 프로그램도 보다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다른 학부교원들과의 긴밀한 협력밑에 하나하나의 창조물을 완성해나갔다.

지금 이곳 학부에서 연구완성하고 구현한 교육강령과 교수방법,



원격강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교원, 연구사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

교수관리체계는 학생들이 실천형의 기술인재로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의 원격교육학부 기계전자공학과 학생인 김종래전기기판차관합기업소 공정원 리성호는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지하전동차생산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고안들을 내놓았다.

조종공학과 학생인 인민봉사총국 창광봉사관리국 로동자 김은혁 역시 전력관리의 정보화와 경영정보체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현실에 구현하여 국안에서 더없는 기술인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대동강축전지공장 로동자 권혁, 인민봉사총국 로동자 김은철을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는 원격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고 있다.

세계교육발전추세, 현실적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끊임없이 원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단상

해바라기꽃처럼

『해바라기』학용품이 학령전어린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각종 연필과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 등이 들어있는 학용품은 색과 모양이 끊고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대번에 어린 마음들을 끌어당긴다.

3각형, 6각형, 원형의 각이한 연필들을 하나하나 번갈아 쥐여가며 학습장에 곱게 글도 써보고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힘뻑 담긴다.

해빛을 따라 활짝 피어나는 해바라기꽃처럼 앞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꽂피우라고 그 이름도 『해바라기』학용품.

어찌 사진속의 아이들의 기쁨만이랴.

조국의 미래인 수많은 어린이들이 『해바라기』학용품으로 자기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리정





혈전의 준비

(전호에서 계속)

그때마다 나는 박훈을 생각했고 토기점풀등판에서 울리던 그의 구령소리를 생각하였다.

교관으로서의 그의 자질 가운데서 다음으로 이채를 띠는 것은 훈련생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이였다. 그 비상한 요구성 때문에 훈련생들이 빠른 속도로 군사지식을 터득해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박훈은 이따금씩 대원들에게 체벌을 적용하곤 하였다. 제식동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규률을 어기는 훈련생들이 있으면 눈알을 굴리며 욕설을 펴붓든가, 발길질을 하든가, 벌을 세우든가 하였다. 혁명군대내에서 체벌은 금물이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훈련 끝에 목이 쉬어서 쉘＝始 하는 박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물었다.

『박훈동무한테서는 어쩐지 군벌냄새가 나는구만. 어디서 그런 군벌기를 배웠소?』

박훈은 군벌냄새라는 말에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를 가르쳐준 교관이 아주 엄하고 독한 사람이었소. 그 독일인이 나에게 그걸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똑똑한 군인이 되자면 어쨌든 채찍맛을 많이 봐야지.』

독일식 군사교육의 흔적은 박훈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의 리론강의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바로 프로씨야군대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훈은 영국병사의 용감성과 프랑스병사의 신속성, 독일병사의 정확성과 로씨야병사의 완강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에게 우리는 그 모든 자질을 다 소유한 만능의 군대가 되자고 호소하였다.

그가 집행하는 훈련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였다. 그는 나쁠 래 용식종대대형과 영국식 일선형 서렬이 무엇인가를 납득시키고 스무 명이 되나마나한 훈련생들로써 그런 대형을 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교련을 참관하던 나는 휴식시간이 되자 박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훈동무, 동무가 방금 집행한 그 영국식 일선형 서렬 훈련은 간단히 설명으로 굽 때고 생략해버리

는 게 어떻소? 우리가 여기서 와떼를로 격전과 같은 전쟁을 한다면 몰라도 산악을 끼고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과 당장 유격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구시대의 병법을 배운다고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거요.』

『전쟁을 하자면 어쨌든 그런 정도의 군사지식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군사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써먹을 것부터 선택해서 배워주어야 하오. 무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채로 소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날 박훈에게 내가 한 말은 훈련에서 교조주의를 경계하라고 한 말이었다.

박훈에게 적위대원을 여라문명 맡기면서 사격 훈련을 시키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평지에다 말뚝을 세워놓고 적이 나타나면 중심하부를 쏘라는 소리만 되풀이 하였다.

나는 박훈을 보고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밀어던지고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배워주어야겠다, 특히 산악전이 요구하는 훈련을 선행시켜야겠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은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교범에 없는 병법은 우리끼리 지혜를 합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자고 하였다.

박훈은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였다. 그 후부터 우리는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초보적인 제식동작이나 무기조작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위장법, 신호법, 창사용법, 적정탐지법, 산길을 타는 법, 곤봉을 다루는 법, 무기를 탈취하는 법, 야간전투시에 적아를 식별하는 법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군사지식부터 배워주었다.

박훈은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저것 배워주다가 나중에는 과정안을 짜 가지고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키였다.

박훈은 후날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황포군관학교에서 배운 군사는 모두 세계 5대 군사강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것이였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병법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지식이었다, 나는 현대 중국의 군사교육의 전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명한 황포군관학교에서 이런 지식을 배운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만에 와서 그것을 보급하게 되면 모두가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였다, 나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랭담한 반응에 부딪쳤었다, 청년들은 나의 강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으로만 받아들이였지 사활적인 것, 필수불가결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내가 섭취한 군사가 비록 세계적인 것이라는 하지만 유격전을 위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반편짜리 지식임을 통감하고는 그것을 무슨 만능의 법전처럼 절대시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였으며 유격전이 요구하는 군사론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교조에서 벗어나 조선혁명에 적응한 우리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안도지구의 《훈련도감》 들가운데서 박훈 다음으로 이채를 띤 인물은 김일룡이었다. 그는 박훈과 같이 현대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으나 독립군에서 싸울 때 터득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대원들을 꾸준히 훈련시키였다.

적위대와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를 비롯한 반군사 조직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대렬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견실한 청년들이 우리의 주위에 수십 명 집결되었다. 우리는 두만강 연안의 여러 현들에 나가서 사업 하던 동지들과 추수, 춘황투쟁에서 단련되고 겸열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안도로 모이게 하였다. 안도, 돈화를 비롯한 동만 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한테로 찾아왔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차광수, 김일룡, 박훈, 김철(김철희), 리영배를 비롯한 18명의 핵심들을 골라 그들로써 먼저 소규모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연길, 왕청, 화룡, 훈춘지방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현마다 10~20명 안팎의 인원으로 되는 무장대들이 꼬리를 물고 태여나게 되었다. 적은 인원으로 무장대를 꾸려 가지고 살금살금 활동하면서 무기를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대렬을 늘이다가 일단 조건이 성숙되면 매개 협별로 대규모의 무장대오를 꾸리자는 것이 명월구 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방침이였다.

소규모 유격대를 내오는 과정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동반하였다. 곤난하다 곤난하다 하여도 무기를 해결하는 일처럼 그렇게 큰

난관은 없었다.

일제 침략군은 본토의 군수산업이 계렬식으로 생산해내는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로 유통공군의 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무기를 대줄 국가적 후방도 없었고 총 한 자루 사울 돈도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포도 아니었고 땅크도 아니었다. 당장은 보총이나 권총, 수류탄과 같은 경무기만 있으면 되었다. 국내에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로 동계급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그런 공장이 없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신을 무장하는데서 자기 나라 공업의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자!》는 비장한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안도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맡겼던 두 자루의 권총을 땅속에서 파냈다. 그 두 자루를 쳐들고 동무들에게 말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루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 형태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종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 이었다. 나는 이 두 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 자루를 밀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 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 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 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밀천이 있으니 이것을 차꾸 굴려 2 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여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무기를 얻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박훈은 나에게 소문을 들으니 무송에서 어떤 부자집 자식이 당신네한테 총 수십 자루를 희사한 일이 있다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는가고 물었다. 그가 말하는 무송의 부자집 자식이란 장율화를 말한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그는 자기 집 가병들의 총 40자루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 총을 조선혁명군 대원들에게 모조리 나누어 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수재민들을 한竽에 안으시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자!》, 이것은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후파를 시급히 가시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의도이다.

지난 8월 13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최근에 있은 재해성폭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상황과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소개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커다란 생활상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통보되었다.

수재민들을 한竽에 안으시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그대로 깃 들어있다.

그이께서는 정치국회의에서 집과 가산을 잊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이

지원한 물자를 실은 수송차들이 일부



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수재민들이 한竽에 나았아 당창건 75돐(10. 10.)을 맞이하게 할수 없다는것이 그이의 뜻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기회에 피해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발전하는 시대적수준에 맞게 일신시키며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위치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이러한 말씀은 지난 8월 6일과 7일 은파군 대청리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울리였다.

지난 8월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련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지역이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먼저 그곳으로 찾아가시였다.

당시 대청땅은 물이 채 짰지 않아 군과 도의 일군들도 아직 올념을 하지 못하고있던 지역이였지만 그이께서는 몸소 감탕만 질벽한 그 길로 몸소 운전대를 잡고 가시였으며 전창에 빠진 야전차를 함께 밀어올린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집을 잊고 포전도 물에 잠겨 눈앞이 깜깜해있던 그 지역 인민들은 그이를 만나뵙고 그믐밤에 태양을 본것만 같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이께서는 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인명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고 무너진 집들을 보시고서는 집주인들보다 더 가슴아파하시였으며 국무위원장의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세대별로 공급해주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지원물자를 받아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있는 피해지역 인민들



부서와 본부 가족세대들이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물에 잠긴 대청리의 800세대가운데서 400세대만 새로 건설하고 나머지 400세대는 개간보수하겠다고 말씀올렸을 때에도 800세대를 모두 헐고 새로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도리어 농장원들이 1동2세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독립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파해지역으로는 량곡과 침구류, 생활용품들과 건설자재들을 실은 차들이 련이어 도착하였고 신속히 기동전개한 인민군부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은 도로복구와 제방보수, 지대정리와 농작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꿈만 같은 현실을 체험하면서 이곳 피해지역 인민들은 격정의 마음을 터치였다.

《원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 마음을 진정할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민을 이렇게까지 떠받드시는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수님께서

큰물피해복구에 떨쳐나섰다.



보내주신 이 쌀로 용기를 둇구고 원수님의 말씀대로 농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셔주는 조선로동당의 본래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이미 지나간 현실속에서 뚜렷이 실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몇 해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입은 라선시와 함북도 북부지역의 큰물피해복구사업을 이끌어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지금 큰물에 잠겼던 대청땅뿐아니라 강원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수재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재앙이 휩쓸 고장들뿐아니라 온 나라 강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그이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갈 인민의 맹세가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본사기자

벼이삭 설레임소리

가을이다.

석양노을 비끼는 저녁이면 전야마다 누렇게 물든 벼이삭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듯 고개를 수그리고 설레인다.

얼마전에 만났던 1116호농장 종업원 김영순의 이야기가 상기된다.

『여물어가는 벼이삭들의 설레임소리를 조용히 듣느라면 우리 농장을 찾아오시었던 원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

하다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령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체105(2016)년 9월 이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새로 육종해낸 강냉이와 발벼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며 실한 강냉이이삭을 이윽도록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이삭을 가지고가겠다고 하시며 몇걸음 가시다가는 보시고 또 몇걸음 가시다가 다시 보시였다.

돌이켜보면 이 농장에는 그이의 현지지도자로 수많이 새겨져있다.

주체102(2013)년 7월, 주체104(2015)년 5월과 8월… 그이께서는 때로는 뼈약별속에서 먼지가 흘날리는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였고 때로는 삼복철의 무더위속에서 땀으로 옷깃을 적시시며 일군들과 농사문제를 의논하시였다.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고 불리한 날씨속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종자를 연구하는데 대한 문제,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학품종의 농작물을 더 많이 육종하는데 대한 문제…

그 길에서 《애국풀》, 《평옥9》호와 같은 새 품종들이 태어났다.

그이의 이러한 모습은 1116호농장에만 어려있는것이 아니다.

최근년간에만도 그이께서는 평양의 대동강과 수종합농장, 북방의 중흥농장, 동해안의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농장과 련판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5년전 8월 농기계전시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농업부문에서 비료는 탄약과 같고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고 하시며 전시된 113종에 510점의 농기계와 부속품을 하나

하나 보아주시였다. 두해전 12월에는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다음해농사를 더 잘 지어놓고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1월 새해 첫 현지지도로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5월 1일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하신 그이께서는 비료증산으로 알곡생산을 늘이게 된데 대해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멀고 험한 포전길도 걸으시며 새로 만든 뜨락또르에 오르시여서는 운전대도 잡아보시며 농민들의 편리성부터 헤아리시는 그이이시다.

그이의 모습은 지난날 제땅이 없던 농민들에게 해방[주체34(1945). 8. 15.]의 봄, 토지개혁의 봄을 안겨주시고 농업협동화의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으로 안겨온다. 그리고 이 땅에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과학농사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으로 어려온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80고령에도 대홍단파 배천, 청단 등에로 농장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생애의 마지막해에도 신암땅으로, 동봉땅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잊지 못해 한다.

탐스런 이삭들이 고개를 숙일 때면
귀전에 울려오는 수령님 그 말씀
들판에 넘쳐나는 구수한 난알향기에
평생시름이 풀린다 하신 그 말씀 못 잊습니다

조국인민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도 있듯이 한 평생 인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명절날, 궂은날에도 비내리는 논두렁길, 밤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이시다.

그분들께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과 주체100(2011)년에 발표하신 농사와 관련한로작도 많다.

『사회주의농촌례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주체83(1994). 2. 24.],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

반향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흠토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지난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4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진행된 『인민이 신뢰하는 령도자』라는 주제의 인터넷 사진전시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전시회는 짧은 기간에 1 153만명의 열람자수를 기록하였다.

중국세계평화기금회, 베이징국제평화문화기금회 공동웨브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해 존경과 신뢰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위풍당당하시다. 지난 몇년동안에 그이의 비범한 정치실력이 파시되었다. 세계의 정치가들은 탄복할수밖에 없다.』

『김정은위원장의 령도는 대단히 멋있다.』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인민은 정말로 행복하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담겨져있다.』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존경과 신뢰는 진정에 넘쳐있다.』 …

우간다전국항쟁운동기관지 『파블리크 렌즈』도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첫째가는 매력은 강과 유를 조화롭게 겸비하신것이다. 최근 몇년간 적대세력들파의 대결전에서 보여주신 자세와 결단은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지도자로 알려지신 그이의 기질을 증시해준다.』

그러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강하신것만큼 매

학기술적으로 하여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주체100(2011). 7. 21.]…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농업문제를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고계신다.

그이께서는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 부드러운분이시다.

인민들의 인사도 허리굽혀 받아주시고 미소 속에 그들과 귀속말도 하시는 등 인민들을 대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참으로 친절하고 소탈하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으시여서는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생활적인 이야기도 나누시며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모습은 국가지도자이시라기보다 한집안의 가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철없는 아이들의 청도 무렵없이 받아주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위인의 영상은 정말이지 인상적이다.

이런분을 조선인민은 령도자로 우러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매력은 다음으로 빈말을 모르시는 대단히 믿음이 가는분이시라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일단 결심하신데 대해서는 꼭 그대로 실천하신다.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여유있고 자신감에 넘쳐 정확한 결심을 내리시는 그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며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는 한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을 철석같은 신조로 간주하고있다.

그이는 또한 매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분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대담하게 사고하고 실천하신다. 비상한 창조와 혁신은 그이의 주되는 활동방식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냉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 뜻을 안고있어 알알이 영글었나, 그로고에 감복되어 고개를 숙이였나 전야마다 벼이삭은 쉬임없이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깊고도 억센 뿌리를 가진 당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조선로동당은 역사의 온갖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낸대기마다에 승리와 영광만을 새기여왔다.

거목이 세찬 바람에 끄떡없자면 뿌리가 든든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리기 시작하였다.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당의 령도를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새 세대 청년들로 타도제국주의 동맹(《는.ㄷ》)을 결성하시였다.

《는.ㄷ》의 결성은 조국에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그것은 《는.ㄷ》의 강령이 조선로동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는.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는.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혁명가들은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는.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당창건의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매 나라에서 당을 창건하는 사업은 그 나라 혁명가들이 주인이 되여 그들자신의 힘으로 하여야 하는것이다.

또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종래에는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소조들을 묶어세우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부터 혁명파가 분리되어 나오는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일반적현상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길을 걸을수 없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던 사람들은 남만쳐다보면서 파쟁을 일삼아 당을 말아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다. 이미 해산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거나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혁명적인 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 따라 주체19(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첫 당조직이 무어졌고 그것을 모체로 각지에 당조직이 확대되었다.

그후 짧은 시일안에 국내의 온성일대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총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부락의 당세포에 이르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현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주체23(1934)년 3월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부대안의 각급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할수 있는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다.

이 나날에 조선혁명의 핵심대렬이 자라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이루되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닦아지게 되였다.

이렇듯 당창건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마련되어있었기에 나라가 해방되어 두달만인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선포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변진혁

로동자대의원

여 주민들은 생활에서 일정한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세대수에 비해 볼 때 물원천이 부족하였던것이다. 농촌을 끼고있고 집들이 분산되어있는 지역적특성과 물원천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수도물공급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무르익히였다.

2년후 그는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였다.

나라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수도관공사를 벌릴것을 결심한 그는 적지 않은 량의 자재들을 해결하였다. 이어 그는 반원들과 합심하여 가장 적합한 위치에 가압장을 세우고 수천m의 관을 늘이였으며 물잡이시설, 뽑프시설, 정화구조물건설을 완성하였다.



안인성

지난해 7월에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작업반장 안인성은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것은 주체101(2012)년부터였다.

군사복무과정에 신병으로 제대된 그는 사회보장을 받은 몸이였다. 국가적인 혜택을 받으며 그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향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고싶은 생각으로 자진하여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로동자가 되였다.

당시 만경대구역 금천동지구는 물이 바른 고장인것으로 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이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바쳐 더욱 열심히 일할 결심을 다지게 되였다.

병원문을 나선 후 그는 금천동주민들의 얼굴에 생활용수문제로 인해 단 한점의 그늘이라도 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물원천지를 찾기 위해 주변야산을 향으며 여러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여러개의 지표수와 지하수원천을 새로 찾아내게 되였으며 작업반원들과 함께 취수뽑프장과 3호뽑프장을 건설하였다.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의 일본색에 감동된 주민들도 너도나도 뽑프장건설에 떨쳐나 공사는 빠른 기간에 결속되였으며 세대들에 맑은 물이 정상적으로 흘려들게 되였다.

인민의 기쁨을 위한 일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를 금천동주민들은 우리 대의원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 존경하고있다.

그는 자기를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인민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전룡진



《우리 소대가 신문에 실렸다!》 주체 108(2019)년 12월 촬영

자체의 생산로래를 구축하여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은
자강도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석탄
을 보장하는 탄광이다.

다른 탄광들에 비하여 자강도공급탄광이 위치
한 지대는 탄심도가 깊은것으로 하여 생산조건
이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탄광은 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
하고 있다. 그 비결에 대해 지배인 조춘남은 자
체의 토대를 공고히 다져나간데 있다고 하였다.

탄광의 공무기지만 놓고보더라도 석탄생산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나 만들어내고 있다.

공무직장에는 탄광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제



새형의 동발도입을 위해

작한 중주파유도로가 있다.

종전에 리용하던 전극단락식주강로에 비해 전
기는 1/5밖에 쓰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은 3배나
높은 중주파유도로를 두고 이곳 탄부들은 《보
배》라고 부르고 있다.

《보배》가 녹여낸 쇠물을 가지고 직장에서
는 탄차바퀴, 전차바퀴, 볼트, 나트, 뱃프동체
등 석탄생산에 쓰이는 여러가지 설비와 부속품
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철남 기술발전과장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
비와 부속품의 95%이상을 바로 공무직장에서
만들어 리용한다고 하였다.

탄광에 꾸려놓은 정머리생산기지에서 나오는
정머리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굴진을 앞세
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경질합금을 자화처리한 정머리는 이곳 탄광
의 기술자, 노동자들의 집체적지혜에 의해 만
들어진 것이다.

질좋은 정머리가 생산되니 굴진과 채탄실적
이 오르게 된것은 물론 탄부들의 마음속에 자
기의 힘,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전차전동기수리기지

며 감속기생산기지를 비롯한 탄광이 구축하여
놓은 생산토대들을 보면서 자강도공급탄광이야
말로 제힘으로 생산을 늘이는 탄광이라고 말하
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탄광에서는 자체의 생산토대를 더욱 공
고히 하는 한편 탄총이 복잡한 조건에 맞게 새
기술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세
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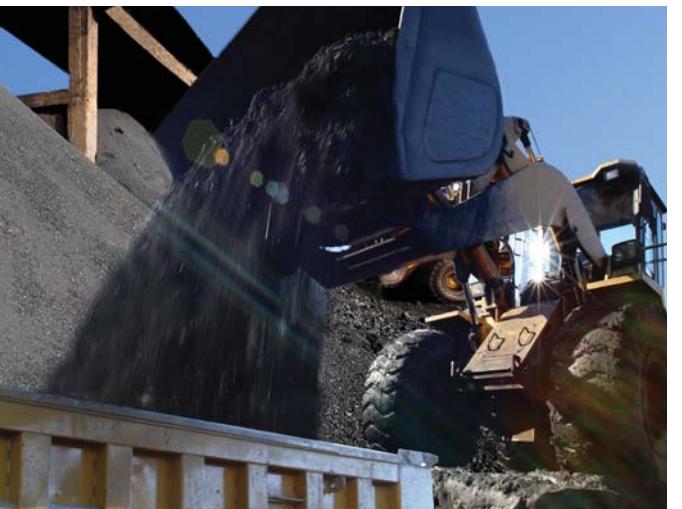
단사갱에 의한 석탄채굴방법과 저탄장석탄선
별 및 운반계통개조, 암석굴진 3공속빼기발파
방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기술혁신안들이 도
입되었다.

특히 조춘남지배인이 연구한 콩크리트5매동
발은 종전의 동발들에 비해 원가를 낮추면서도
갱도유지능력을 3배이상 높일 수 있는것으로 하
여 탄부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늘 자강도공급탄광의 탄부들은 한결같이
《과학기술과 자기 힘에 의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민들레》 학습장에 빠진 마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학습장표지도안에 대한 현상응모

지난 6월 개학을 앞둔 전국의 학생들이 《민들레》 학습장을 공급받았다.

《민들레》 학습장은 조국의 학생들 속에서 인기가 높은 학습장이다.

그것은 종이의 질이 좋은데도 있지만 표지가 각이한 나이에 따르는 학생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장은 평양시 서성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공장이 조업 한지 4년밖에 안 되지만 《민들레》라는 이름과 함께 공장은 온 나라 인민들과 학생들의 마음 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시기 공장에서는 학습장 생산량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에 대해 최철민 기사장은 『조업 당시 우리는 수천만권의 학습장 생산을 큰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4년 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종업원들의 지혜로 널려져 있던 생산 공정들을 합쳐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흘렉소인쇄-철사제책 종합 흘름선을 만들어 생산 능률을 높이었으며 또 하나의 종합 흘름선 제작에 달라붙었다.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만든 이 흘름선에 종업원들은 자력 생생 1호, 자력 생생 2호라는 이름을 달았다.

부지 절약형, 로력 절약형, 에너르기 절약형 생산 공정 확립과 함께 공장에서는 자체로 종이 공장과 지함 공장 건설도 진행하였다.

도시 주변에 꾸려진 종이 공장에서는 다 쓴 《민들레》 학습장들에 대한 회수 체계를 세워 재자원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는 학습장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내밀었다.

분기마다 진행되는 학습장 표지도 안에 대한 현상응모가 대표적 실례이다. 이 사업에는 공장의 지배인으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가하고 있다.

여러 번 현상응모에 당선된 박봉혁 직장장은 『표지도 안 창작을 위해 초급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새로 만든 <민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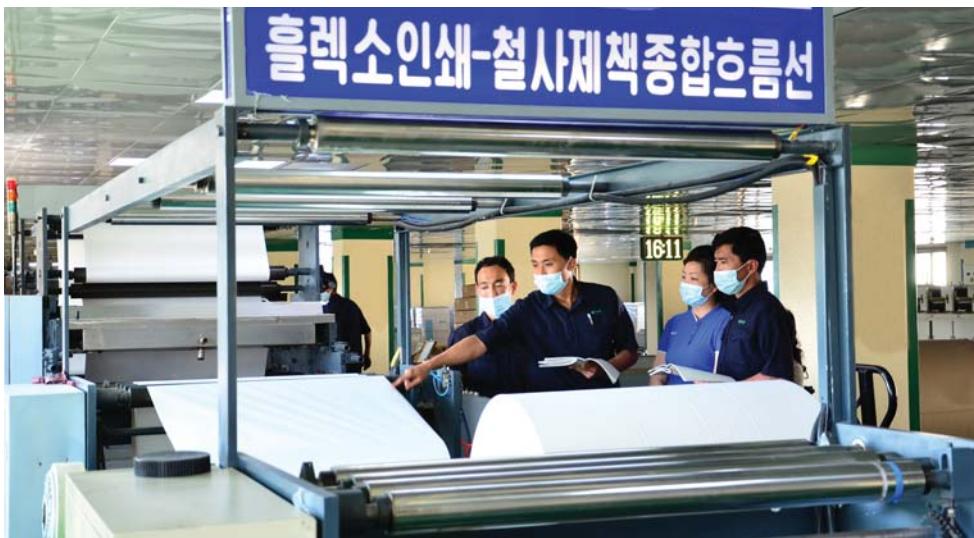


민들레 학습장을 받아안고 주체 109(2020)년 6월 촬영

학습장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니 하였다. 그 과정에 비록 자그마한 학습장 표지지만 한 권 한 권이 학생들에게 착상과 상식을 주는 도안으로 되여야 한다는 생각을하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 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 기자 방은십

생산자 대중의 높아가는 열의에 의해 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습장은 국가적인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었다.



푸른 숲을 가꿔가는 사람들

황해북도 린산군 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이 군안의 모든 산들을 쓸모 있는 산, 원료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경영소에서는 이미 전부터 해마다 잣나무, 창성이 깔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를 생산하여 심고 가꾸어 왔다.

하여 높고 낮은 산들에 무성한 수림이 펼쳐졌고 상하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유용동물보호구가 꾸려졌으며 련풍리의 산기슭에 사슴떼가 흐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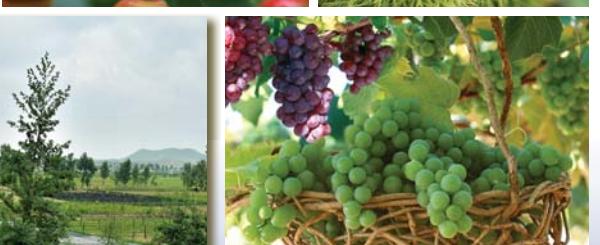
경영소에서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밤나무, 머루나무, 다래나무를 비롯한 산열매나무를 많이 심어 혼성림을 조성할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봄부터 나무모생산면적의 50%를 산열

매나무모밭으로 전환한 경영소에서는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산열매나무들을 확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종업원들은 10여종의 산열매나무모종자를 계획대로 확보하고 보관을 과학적으로 하는 한편 산열매나무들의 특성에 맞게 양묘장들의 토양조건을 개선하였다.

나무모들의 사률률을 높이기 위해 낮은 온도와 젖은 모래에 의한 종자처리기술을 받아들이는데도 힘을 넣었다.



산열매나무모생산도 과학이라는 것을 자각한 이들은 돌배나무, 머루나무, 다래나무를 비롯한 나무모들의 수종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온도와 습도보장, 거름주기와 김매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 영양액을 리용하여 튼튼하고 실한 모를 키울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지삽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식용 및 약용가치가 있는 산열매나무모생산을 점차적으로 늘이였다. 이들은 머루나무와 다래나무는 지난해 잡자는 시기에 들어갔을 때 가지를 잘라서 50대씩 묶어 보관하였다가 올해 봄에 양묘장들에 심을수 있게 하였다.

모든 설비들이 자동조종되는 수지경관온실에서는 잣나무, 머루나무, 다래나무모들이 자라고 있으며 야외적 응구에서는 단나무, 돌배나무, 밤나무모들이 키돋움하고 있다.

백천리 산림감독원 김원성, 련풍리 산림감독원 김경수를 비롯한 산림감독원들도 확보된 종자를 수종별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종자처리하여 짹트기률을 높이면서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을 지키였다.

올해 봄철나무심기기간에만도 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은 10여종에 근 200만그루의 산열매나무모들을 생산하여 군주민들과 함께 산들에 심었다.



담당산림을 찾아서



산림을 돌아보고 있는 산림감독원들

산림경영소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과 혁신적인 노력에 의해 군안의 산들이 쓸모 있는 산, 원료기지로 전변되어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흰구름》개발자들

공정 감시 프로그램 작성 도구 《흰구름》이 전국정보화성과 전람회-2019에서 10대 최우수 정보기술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평양제약공장과 금산포젓갈 가공공장,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어 그 실용성이 확증된 《흰구름》은 국가과학원 정보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김령동실장을 비롯한 젊고 실력 있는 연구사들이 망라되었다.

그들이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것은 프로그램의 기본구조의 설계였다. 기본구조의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체계의 질과 효율이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연구조의 책임자인 국가과학원 정보공학연구소 실장 김령동은 종전의 통합생산체계는 프로그램전문가와 해당 단위의 생산 공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었다, 통합생산체계들마다 서로 다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일단 체계 사고가 나면 작성자가 있어야 복구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애로를 주었다.

생산공정에 대한 일반지식만 있어도 공정수정 및 작성, 체계의 리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김령동실장을 비롯한 젊고 실력 있는 연구사들이 망라되었다.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새로운 안목이 연구에서의 진전을 가져왔다.

연구를 시작한지 3년 만에 연구사들은 《흰구름》(초판)을 개발하였으며 드디어 환경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험과정에 연구사들은 프로그램이 일련의 부족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고있는 선진적인 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도 따라세웠다.

그들은 각이한 부분의 통신 규약들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통신규약들의 첨부, 통신부분 품개발사업도 적극 추진시켜나갔다.

프로그램의 암호화와 조종론 리실행의 정확성, 오유수정기능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실행환경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서도 연구사들은 지혜를 합치였다.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새로운 안목이 연구에서의 진전을 가져왔다.

연구를 시작한지 3년 만에 연구사들은 《흰구름》(초판)을 개발하였으며 드디어 환경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험과정에 연구사들은 프로그램이 일련의 부족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상식

《왕오천축국전》

이 책은 8세기 초에 불교학자였던 혜초가 창작한 여행기이다.

혜초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디아에 가볼 것을 결심하고 먼 길을 떠났다.

그는 당시 인디아에 있던 《오천 축국》 즉 다섯개(동, 서, 남, 북 및 중앙)의 소국과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 이 책을 썼다.

오랜 세월 이름만 알려져온 책은

중국의 돈황석굴에서 발견되었다.

책에는 필자가 돌아본 나라들의 자연과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실례로 중앙인디아(당시)에 대하여서는 《기후가 매우 따뜻하여 늘 쌍 꽃이 피고 서리나 눈이 오지 않는다. 떡과 국수 및 우유를 먹고 마시지만 장이 없고 소금을 쓴다.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책에는 여러 나라들의 사회 정치 제도와 불교의식과 관련한 내용도 실려 있다. 또한 조국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도 담겨져 있다.

《왕오천축국전》은 당시 우리나라의 문학수준을 보여줄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연구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 * *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이 기능상측면에서 오유수정 능력이 높지 못하고 통신규약과 부분품들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흰구름》(초판)이 내재하고 있는 부족점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가 심화되는데 따라 연구사들 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창일, 림길호, 홍정민 연구사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체계의 보안 측면과 실시간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이 제기되어 연구사업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서로 돋고 이끄는 과정에 연구원들의 실력도 한계단 올라서게 되었다.

《흰구름》(초판)의 연구에서 쌓은 경험은 다음 단계의 연구파제인 《흰구름 2.0》 개발에서 좋은 밑천으로 되었다.

《흰구름 2.0》은 초판의 개선판으로서 현재 많은 단위들에서 리용되고 있다.

지금 이곳 연구사들은 보다 높은 기능을 갖춘 《흰구름》 개발을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다.

그들이 연구하는 《흰구름》의 기술적 재원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현실 도입 과정을 거쳐 보다 완벽해지고 있다.

김령동 실장은 말하였다.

『새로운 목표를 부단히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첨단 연구 성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뛰어난 흔적을 남기려는 것이 우리 연구집단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조선 속담 (결단성)

- 범 무서워 산으로 봇 가라

어떤 곤난이나 난관이 있다 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 소뿔은 단김에 빼라

어떤 일이든지 결심한 일은 기세

를 높추지 말고 해야지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라도

뚫는다

남자가 한번 시작한 일을 도중에

그만둘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또는 단호하게 내린 처분을 철회하

는 경우에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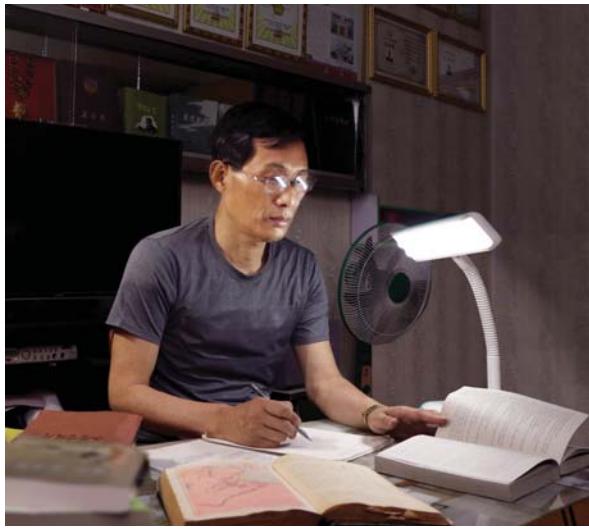
뚫는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 *

장편사화 《동의보감》을 쓴 교수



한영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고전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칠환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의보감>은 17세기초까지의 우리 나라 의학발전성과들을 집대성한 고려의 학교전입니다. 이 책을 쓴 허준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사화 <동의보감>이 3년 전에 출판되었는데 이 도서는 신의주의 학대학 의학연구소의 한영철교수가 썼습니다.』

장편사화는 당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고려의 학자 허준(1546년-1615년)의 애국심을 감동적으로 그린 것으로 하여 오늘 사람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다.

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감동은 필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역작가들도 어려워하는 역사물주제의 작품창작을 스스로 맡아안은 의학교수, 최근년간 『명의로중례』, 『의술에 비친 강자의 냇』을 비롯하여 4편의 장편문학작품을 련이어 창작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의주의학대학 학장 리제명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대학 졸업생인 한영철 선생은 대단한 정열가입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1950년-1953년) 적들파의 싸움에서 두팔을 잃은 아버지와 두다리를 잃은 어머니를 돌보는 속에서도 대학기간에 4건의 국제 및 국내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학분야에서 받은 특허증서와 발명증서만 하여도 수십건이나 됩니다.』

보건대 한영철교수는 자기의 창조물을 늘여나 가는데서 락을 찾는듯 하다.

그는 대학연구소에 배치된 후 고려전자치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개척에 달라붙었다. 전통의학의 우점을 살리면서도 침치료나 펌치료의 아픔과 피부손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치료기구개발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연구여서 참고할 자료도 없었고 실패도 많았다. 치료효과검증을 위해 미완성실험기구들을 자기 몸에 가져다댄 적도

수십번, 그러느라 화상까지 입군하였다.

그렇게 10년, 간고한 노력끝에 그는 고려의학, 전자공학, 물리학의 기술이 도입된 초단파전자뜸치료기를 만들었다.

그는 련이어 음악저주파를 이용하여 침혈부위를 자극하는 가정용음악치료기, 환자의 특성에 맞게 침, 부항, 안마, 면적외선찜질 등을 조화롭게 적용할수 있는 가정용고려전자치료기를 만들었다.

이 치료기들은 각종 신경통, 소화기질병들, 뇌혈전후유증 등에 대한 림상치료에서 호평을 받았다. 7년전에는 하반신마비인 한 청년을 일으켜세워 대학부속병원 신경과 의사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나날 한영철 교수는 자기가 축적한 리론들과

손자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보며



한영철이 집필한 소설의 일부

1 000여건의 림상도입결과 등을 분석, 체계화하여 『저주파침혈표면자극치료』를 비롯한 12건의 도서와 많은 교재, 논문을 집필하였다.

그의 노력에 의하여 주체105(2016)년 비로소 의학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고려전자치료학문이 나왔다.

그는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의 걸음마도 떼여줄수 없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된 사람)들이 나의 부모를 보살펴주고 나의 희망을 꽂고 위주어 30대의 박사로, 오늘은 교수로 내세워주었다.

조국앞에 유익한 창조물을 하나님께 더 내놓기 위해 나는 4년전부터 생소한 문학계에도 뛰여들어 고려의학을 연구하는 과정에 수집한 역사자료들로 소설을 쓰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흥정혁

우리그림들

사진들은 인기를 끌고있는 유리그림들이다.

세화기법으로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의 청신한 기운이며 국조인 참매의 용맹한 기상을 여려장의 유리에 형상한 유리겹그림 『소나무와 참매』, 희귀한 물고기들이 노니는 바다속을 보는것 같은 유리겹그림 『수중세계』, 여러가지 색갈의 유리가루와 유리쪽무이로 형상한 색유리가루그림 『작곡가 김원균』, 색유리쪽무이그림 『장미꽃』.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되는 유리그림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창작가들은 사람들의 높아가는 미학적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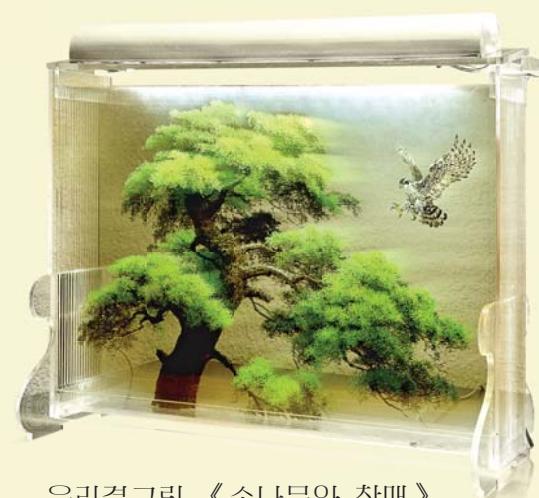
구에 맞게 유리그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듭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여 유리겹그림의 형상에서 투명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하였으며 그림웃면에 조명을 설치하여 유리그림의 예술적 효과성을 높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천연재료를 이용하는 색유리가루그림과 색유리쪽무이그림들을 완성하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재료들을 가열시키고 녹이며 실험을 수차 진행하였다.

변색을 모르는 유리그림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유리겹그림 『소나무와 참매』



유리겹그림 『수중세계』

12개의 대학졸업증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교수 박사 강진조의 가정에는 한장의 색달은 사진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그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돌이켜 본다.

해방전 그의 집은 평안북도 넴변군의 산골마을에서 손바닥만 한 뼈기발에 명줄을 걸고 가난속에 살았다.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가는 속에서도 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나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어느날에는 구룡강지류에서 밤새워 잡은 물고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공부시켜 줄것을 애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랭대와 멸시였다.

아들을 마음껏 공부시키려던 부모의 꿈은 나라가 해방 [주체34(1945). 8. 15.]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공부하면 나날에 강진조의 꿈도 커갔다.

마을사람들이 앞으로의 희망을 물으면 그는 자신심에 넘쳐 대답하곤 하였다.

유모아

꽃밭에 물주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릴듯 하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꽃밭에 물을 주던 아들이 《아차, 내가 오늘 물주는것을 잊었네.》라고 말하며 물초롱을 들고 꽃밭으로 뛰어갔다.

《공부를 잘해서 꼭 대학에 가겠어요.》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의 불구름은 그의 희망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였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그 시기 대학공부를 한다는것은 바랄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꿈을 지켜주고 꽂피워준것은 조국이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인 주체40(1951)년 11월 그는 그렇게도 소망하던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백송리의 산기슭에 꾸려진 대학에서 공부에 열중하던 그는 다음해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학에 찾아오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날 대학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하나하나 빼해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친부모의 심정으로 풀어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접하며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조국의 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가 되리라 마음다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연구사로 일하는 딸들의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볼 때마다 강진조의 마음속에는 이런 욕심이 생겨났다.

(딸들의 곁에 대학졸업생사위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되여 그의 가정에는 사위들의 졸업증까지 합쳐져 대학졸업증이 늘어나게 되였다.

그후에는 손자, 손녀들이 하나둘 대학을 졸업하여 어느덧 강진조로인의 가정에는 대학졸업증이 12개로 늘어났다.

강진조는 말하였다.

《무료교육의 혜택으로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꽂피우는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우리 가정만이 아닌 온 나라의 가정들에는 대학졸업증이 계속 늘어만 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승마운동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술협회 서기장 리동준과 기자의 문답 -



기자: 협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서기장: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 승마기술을 보급하고 그들이 승마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대중봉사활동과 함께 마술종목기술을 높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중요하게 내밀고 있다.

평양시교외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는 승마애호가들을 누구나 즐겨 찾는 대중봉사기지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기간 이곳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승마기술보급과 승마애호가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였다.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파외승마강습(2년제)을 진행하는데 대상은 승마에 취미를 가진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선발된다.

그들은 강습기간에 말타기리를 습득하고 실기훈련을 통하여 말타기수법을 터득하며 말의 특성과 말사양관리를 비롯한 승마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리론, 실기시험을 거쳐 기마수자격을 받게 된다.

중년기승마애호가들속에서 하나같이 승마운동을 하면서부터 직업적인 정신적파로가 해소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과 전위선염을 비롯한 로화질병치료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봄에 1차, 가을에 2차 해마다 승마애호가경기도 조직한다. 그런데로부터 미림승마구락부를 찾는 손님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봉사를 미처 따라 세우지 못할 정도이다.

경기에서는 미림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마장마술모범출연

과 경마추첨도 진행한다.

경기는 사람들에게 승마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고 선수들사이에 승마경험을 나누며 기술을 높여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다.

최근 미림승마구락부의 봉사조건과 환경이 새롭게 일신되어 애호가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기자: 협회에서 마술종목기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기장: 미림승마구락부의 기마수들이 마장마술을 꾸준히 세련시키고 있다.

마장마술은 마술종목들중에서 말의 세련되고 재치있는 기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다.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기마수들은 말에 대한 기초조교를 완성하고 고급마술동작들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기마수들은 경마와 장애물뛰여넘기, 산야횡단달리기를 비롯한 올림픽세부종목들에 대한 마술기술동작들을 익혀가고 있다.

협회는 기마수들의 훈련을 다그쳐 가까운 앞날에 국제마술련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마술경기들에 참가할 계획이다.

마술협회는 주체107(2018)년 11월 20일에 국제마술련맹에 가입하였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 * *

첫 녀자국제레스링심판원



최정복

이렇게 되여 그는 대외경제 성체육단 녀자레스링 선수가 되었다.

그의 훈련지도를 맡았던 박 현철 감독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기계체조를 한 최정복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육체적준비가 좋았다. 이것은 그가 레스링기술을 빨리 익히는데 도움이 되였다.》

그는 좋은 운동감각과 이악한 노력으로 인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선수생활을 시작한지 2년만에 그는 주체96(2007)년 청년 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55kg급 경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7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0여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그후 국가종합팀선수로 활약하면서 그는 주체98(2009)년과 주체100(2011)년 아시아 레스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55kg급경기들에서 각각 순위권에 입선하여 국제적으로도 실

조선에서 녀자레스링은 주체94(2005)년에 시작되었다.

지난 시기 박영미 녀자레스링 세계선수권보유자를 비롯한 많은 녀자레스링 선수들이 배출되었다.

성과는 선수들속에만 있지 않다.

대외경제성체육단 최정복이 국내에서 첫 여성감독, 심판원이 된 후 지난 2월 첫 녀자국제레스링심판원이 되였다.

그의 나이는 32살이다.

중학교시절 기계체조선수였던 최정복은 녀자레스링종목이 생기자 그것으로 마음이 쏠리였다. 교예배우가 되기를 바랐던 부모들도 그의 지향을 돌려 세울수 없었다.

력이 높은 선수로 인정 받았다.

그러던 그는 훈련중에 부상당하여 더는 선수생활을 할수 없다는 의학계의 진단을 받고 24살에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는 레스링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4년후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그는 첫 여성감독, 심판원이 되였다.

선수시절의 그 열정으로 그는 지난 3년간 레스링종목의 대를 이어갈 능력있는 선수들을 많이 키워냈으며 국내 경기들에서 공정하면서도 정확



국제레스링심판원선발에 참가한 여러 나라 심판원들과 함께

하게 심판활동을 벌려 평가를 받았다.

더우기 지난해 10월 그루지야에서 진행된 35살이상 세계로장선수권대회의 레스링국제심판시험에서 그는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특히 남자레스링결승경기에 서 주심의 역할을 손색없이 수행하는 그의 심판활동은 심판원들과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기에서 그는 두 선수의 전술적의도를 제때에 판단하고 옳은 위치선택과 즉시적인 결심채택으로 선수들의 동작채점을 신속정확히 내리고 여러 형용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경기를 조종하였으며 관중과 선수사이의 경기호흡을 잘 맞추어나갔다.

경기후 세계레스링련합 위

원인 이브라힘은 최정복의 심판모습을 록화한 동화상을 수험생들앞에서 보여주면서 『심판동작들이 세련되고 오랜 심판원들의 능력을 증가한다. 최정복은 오늘 레스링심판전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세계레스링련합에서는 지난 2월 최정복을 국제레스링심판원으로 등록하면서 6월에 진행하게 될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 심판원으로 정식 지명하고 초청장을 보내여왔다.

아쉽게도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로 대회의 개최가 중단되어 실현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그의 심판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가 자못 큰것으로 보인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새로 만든 편집물에 대한 합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재료리정보기술교류사 일군들

홈페이지 《조선료리》의 주인들

조선료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료리》의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음식은 송아지홍선구이, 노루다리돌구이, 붉은팔고물찰떡과 여러 가지 김치라고 한다.

조선료리의 우수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조선료리를 봉사하는 해외의 식당들에 단골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로마니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의 레스토랑과 호텔들에게 조선료리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서재료리정보기술교류사의 일군들이다.

주체100(2011)년에 설립된 서재료리정보기술교류사는 민족요리와 다른 나라 요리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들을 국내와 세계에 선전보급하여

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 오랜 생활과정에 창조하여온 한전한전의 자료수집에 품을 들이었다. 민족음식의 종류와 가치, 영양학적 가치, 레시피는 물론 원자재 계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정보화한다는 것은 헐한 일이 아니었다.

레시피와 관련한 다양한 상식들과 조선의 명료리들과 다른 나라의 레시피들, 조국의 이름난 식당들에 대한 안내자료들을 구축하자니 레시피에 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프로그램작성, 다매체편집물제작방법에도 정통해야 하였다. 하지만 민족음식을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남다른 공지와 자부를 가지고 그들은 지혜와 열정을 바쳐갔다.

마침내 그들은 민족요리와 세계요리에 대한

방대한 레시피지식들과 상식들, 그런 관분야에 대한 수만건의 자료를 구축하고 망을 통하여 국내의 급양봉사망들과 도서관들, 가정들에 봉사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교류사에서는 6년 전 1월부터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료리》를 개설하고 수천 건에 달하는 민족음식 자료들을 올리였다.

어느 한 나라의 홈페이지방문자는 《얼마전 나는 한 친구의 말을 듣고 <조선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그런데 볼수록 상상을 초월하였고 당장 그 모든것을 다 맛보고싶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전해왔다.

교류사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주체107(2018)년에 손전화기용 레시피 앱프로그램 《료리세계1.0》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료리세계2.0》을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로 하여 식당과 가정들에서 민족요리와 다른 나라의 레시피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임의의 자료를 손전화기와 판형컴퓨터를 통해 찾아볼수 있게 되었다.

서재료리정보기술교류사 사장 안성일은 말하였다.

『조선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는 레시피에서 살고있다. 세상에 자랑할만한 민족 음식자산을 많은 나라들에도 보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편집물창작에 열중하고 있는 기자, 편집원들



우리의 생활



조금철(왼쪽)

불속에서 먼저 생각한것은

지난 6월 중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의 한 가정에서 뜻밖의 화재가 났다.

집안을 휩쓴 불길은 여름철의 달아오른 대기로 하여 더욱 무섭게 타번지였다.

바로 그속에서 무엇인가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온 한 청년이 있었다.

웃이 불에 타고 온몸이 화염에 그슬리는 속에서도 청년이 먼저 안고 나온것은 그 가정에 높이 모시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였다.

화재현장에 모여든 사람들과 뒤늦게 달려온 집주인들은 낯모를 그 청년을 저마다 부둥켜안았다.

그 청년은 7살때부터 해마다 부모와 함께 백두산을 찾으며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여 온 청진광산금속대학 정보공학부 4학년 학생 조금철이다.

령길에서 만난 처녀

얼마전 함경북도 김책시교외에 있는 마천령에서였다.

령이 높아 구름과 맞닿은것 같다고 하여 그 이름도 마천령으로 불리우는 이 험한 령길에서, 그것도 비내리는 깊은 밤 처녀와 맞다들게 될줄 이야.

조심히 달리면 우리의 취재차조명에 비쳐진것은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안깐힘을 써가며 산턱에서 굴러내린 돌들을 치우는 처녀의 모습이였다.

궂은날이면 의례히 이 령길의 위험개소들에 마음을 쓰게 된다는 처녀, 그(김은향)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지난해 겨울 우리 도에 있는 중평 김은향(오른쪽)



퇴근길에 오른 전철학가정

원해나온 오중흡청진사범대학 사무원들이 전철학파 문향의 딸이였다.

그들은 신혼생활을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에서 보낼것을 결심하고 돌격대에 입대한 후 어렵고 힘든 일에 늘 앞장서군 하였다. 더우기 문향은 돌격대원들의 식사보장과 건설장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해 애쓴것으로 하여 누구나의 존경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팔향언제가 준공된 후 류송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전철학파 문향을 온 동리 사람들이 반겨맞아주었다.

소중한 부름—《우리》

지난 2월 청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수성천에서였다.

아이들의 다급한 웨침이 거듭 울리는 속에 한 청년이 얼음구멍속에 풍덩 몸을 던졌다.

한초, 또 한초… 안타까이 발을 구르던 아이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리였다. 그 청년과 한 어린이가 물우로 솟구친것이였다.

살을 에이는 차디찬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여 들어 어린 생명을 구원하고 자리를 뜯 그 청년의 이름은 그때로부터 넉달이 지난 후 알려지게 되었다.

함경북도수산관리국 직하대서양연어종어장의 혁신자들을 소개한 도일보에서 아이들이 그 청년의 모습을 알아본것이였다.

후날 그 청년(김현철)은 구원된 어린이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황에 부딪쳤다면 저처럼 행동했을것입니다. 누구나 <나>보다 <우리>라는 부름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래일을 마중가는 사람들

래일!

래일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그 래일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희망차게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평양시 평천구역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더 굳어졌다.

일본에 있는 리복실동포의 동생이 살고 있는 평천구역, 유서깊은 대동강을 끼고 있는데다가 평양성을 비롯한 역사유적으로 류다른 풍치를 안겨주는 평천구역은 사람들의 래왕이 많은 곳이었다.

더구나 지금으로부터 5년전 대동강기슭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서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원들이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구역의 인구수도 많아졌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본 미래과학자거리에 대한 외신의 글이 우리의 기억에 떠올랐다. 4년전에 브라질의 빠뜨리아라띠나신문사 사장이 웨브싸이트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여러곳을 찍은 사진을 올리자 가입자들은 서로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의 글줄을 되새겨보며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던 우리는 둑배모양을 한 초고층살림집앞에서 구역의 한 일꾼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평천구역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지대라고 하면서 최근 몇 해어간에 자기의 힘으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을 먼저 찾았다.

전쟁시기에 창립된 공장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자기의 연혁사에 짚직이 아로새기였다.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만들었으며 질좋은 수지마대와 인공잔디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수지를 재자원화하여 질좋은 수지기와들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평천고려약공장에서도 볼수 있었다.

공장에 들어서니 산죽이 보기 좋게 쭉 널려져 있었다. 호기심이 동해 종업원들에게 물어보니 사시장철 푸른 산죽은 강원도 세포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항암효과가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산죽으로 약을 만들면 불치의 병으로 고생

미래과학자거리의 일부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였다.

공장에서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종수는 수십종에 가지수만 해도 수백가지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록사향, 황금민들레간염단알약을 비롯하여 많은 약들은 인민들이 선호하는 약들로 되었으며 공장은 구역관내를 벗어나 전국에 이름나게 되였다.

그 비결에 대해 오랜 기간 고려약생산부문에서 일한 문순옥지배인은 웃으면서 약초를 적기에 채취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운 결과면서 먼 후날에도 후대들이 이 덕을 볼수 있는 래일을 위한 공장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평천김치공장과 평천식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에서도 생산공정현대화와 새 제품개발, 원료, 재료의 국산화, 질제고 등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루하였으며 앞으로의 래일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역은 나날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었다.

하기에 4년전에 평천구역 미래동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보고싶어 일본에서 온 신호달로인은 평천구역을 돌아보고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10년은 젊어졌다며 백살을 내다보는 나이이지만 아예 아들네집에 눌러앉고 말았다.

들으면 들을수록, 돌아보면 볼수록 비록 나아와 이름, 직위,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름답고 희망찬 래일을 마중가는 사람들의 뜨겁고도 열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가고 있는 평천고려약공장



아들의 집에 온 신호달동포(왼쪽에서 두번째)를 찾은 호담당의사

평천김치공장에서



글 본사기자 엄향십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난 2월 김만유병원 수술장에서는 1시간나마 뇌종양수술이 진행되었다.

환자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 최사봉이였다.

최사봉은 몇년전 뇌종양이라 진단을 받은 후 김만유병원에서 여러차례 대수술을 받았었다.

함흥시에 자리잡고있는 그의 집에서는 아흔살을 가까이 하고있는 어머니가 아들의 최종수술결과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한평생 과학자였던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여온 로인은 늘

아들의 연구사업을 관심하면서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였다.

해방전 일본에서 오사카대학 화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시립대학 연구사로 있던 아버지 최석권은 1950년대 중엽 총련 과학자협회 초대회장을 하였다.

주체51(1962)년 10월 최석권은 한살밖에 안된 아들 최사봉을 품에 안고 귀국선에 올랐다.

최석권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연구사로 일하면서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적지 않

아버지와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최사봉

주체81(1992)년 촬영



최사봉

은 기여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렸을 때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최사봉은 주체75(1986)년에 리파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조수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강냉이 종자처리, 집짐승성장첨가제와 같은 수십건의 연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 쓸모없이 벼려지던 붉은대게의 껌질속에 인체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것을 밝혀냈다.

하여 그는 1990년대초에 껌질에서 키토잔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하였다.

키토잔에 대한 연구는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기초연구에 토대하여 키토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리론유기화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는 키토잔의 리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섬유의 로화를 막을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그 성과가 도입된것의 하나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공화국기발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공화국기발은 수십년세월과 더불어 로화되어 약간의 자극에도 실들이 끊어져나갔다.

여러 연구사들이 고심하였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하였다.

최사봉은 항산화물질이 라디칼을 끊는 작용을 한다는것을 밝혀냈다.

그는 섬유질이 더 로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미 끊어졌던 실들을 연결시키는 시약을 연구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약으로 처리한 수십년전의 공화국기발을 비롯한 각이한 섬유들은 손감각이 부드럽고 유연할뿐 아니라 강도도 더 높아졌다.

최사봉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박물관에 전시할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원상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물을 고체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도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그는 끝끝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존하는데 성공하였다.

최사봉은 《카르복시메틸키토잔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받은 후 《키틴, 키토잔과 우리 생활》, 《키토잔나노재료》와 같은 도서들도 집필하였으며 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최사봉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그는 말하였다.

『조국이 있기에 우리 과학자정도 있다. 아버지가 한생을 과학연구의 길을 걸은것처럼 나도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한 길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겠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상식

민족음식 만두

만두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만들어 먹은 민족음식이다.

만두는 그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의 합리적인 조화로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

선조들은 만두소감으로 주로 고기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두부, 낙지 등을 이용하였다.

만두는 료리방법에 따라 물만두, 찐만두, 군만두 등으로, 만두소의 재료에 따라 고기만두, 낙지만두 등으로 나눈다.

만두의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만

두소만들기, 만두껍질만들기, 빚기 등의 공정으로 되어있다.

옛 서적에는 메밀가루만두와 밀가루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만두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적혀있다.

만두국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꽂게 빚은 만두를 익혀 그릇에 담고 그우에 양념한 고기꾸미를 놓은 다음 깨소금을 뿌리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만든다.

물만두는 빚은 만두를 익힌 다음 찬물에 살짝 행구거나 그대로 접시

에 담아 초간장과 같이 낸다.

찐만두는 빚은 만두를 가마에서 쪄낸 후 찬물을 조금 뿌린 다음 참기름을 발라 초간장과 함께 낸다.

군만두는 빚은 만두를 앞뒤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 접시에 담고 초간장을 곁들여낸다.

선조들은 흔히 명절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손님이 올 때 만두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중국 길림성 길립시 창색구 중흥가 125호 리을수조카에게

혈육의 정을 나눌 그날을 기다리며

조카, 잘 있었소?

조카며느리와 손녀 미선이
도 앓지 않고 잘 있는지.

그리고 태수, 한수, 만수조
카를 비롯한 가정 모두가 무사
한지.

정말이지 조카들이 보고 싶
구만.

내가 중국에서 조카들과 상
봉하던 때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소.

아직도 길림역에 나를 마중
나왔던 조카의 모습이 눈에 선
하오. 그때 내가 본 조카들의
모습은 꼭 생전의 아저씨와 언
니의 모습이었소. 태수와 자
네, 한수는 신통히도 아저씨
를, 만수는 언니를닮았소. 마
치도 아저씨와 언니를 다시 보
는 것만 같아 나는 눈물만 흘
리였지.

조카도 내 모습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했지. 역시 피줄은
감출 수 없는가 보오. 서로가
처음 만나지만 서먹서먹한 감
정은 없고 혈육의 정만이 흘러
넘쳤으니 말이요.

늙어서는 옛 일을 추억하며
산다고 누우면 아저씨와 언니
생각과 조카들의 얼굴이 떠오
르군 한다오.

조카, 내 비록 84살이지만
아직 건강하오. 안경 없이 신문
도 보고 바느질도 한다오.

나는 지난해에 평양의 아들
네 집에서 살다가 순천의 딸네
집으로 왔다오. 자식들이 저저
마다 나와 살겠다고 하지만 어
쩐지 마음은 순천화력발전소에
서 일하는 사위한테로 향하더
구만.

군관으로 군사복무를 하다
가 제대되어 발전소에 자진하
여간 사위가 지금은 전기직장

에서 일하고 있소. 마음씨 무던
하고 일도 잘한다오.

기계속내에 밟아 기술혁신
도 여러 건이나 했다오. 그래
창의 고안증서들도 받았는데 몇
년 전에는 기술자들과 함께 발
전소의 연료를 절약하는 좋은
설비를 만들었다고 하오. 최근
에는 또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도 책들을
펴놓고 있소.

발전소의 병원에서 조제사
로 일하는 딸도 잘 있소. 로동
자들의 건강에 좋은 고려약들
을 많이 만들자면 약초밭을 더
조성해야 한다며 여간 극성이
아니요. 그래 나도 그애를 도
울 생각으로 터밭에 약초들을
심고 가꾸고 있소.

요즘 딸애는 로동자들의 건
강에 좋은 고려약들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대에 망라되어 현
장에서 살다 싶이 한다오.

조카, 할말이 많지만 이만
쓸가 하오.

한번 시간을 내여 평양을 다
녀가오. 나도 그렇고 우리 자
식들이 조카들을 봅시 보고 싶
어 한다오.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을 기
다리겠소.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
55인민반 김봉철이모로부터



민족 교육의 명맥을 지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은 이국
땅에서 민족성을 지키며 새 세
대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계승
자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기에 총련은 민족교육을 발
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
리고 있다. 특히 교육일군들은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파시하고
학생들의 학파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와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
는 학생들의 학파실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많
은 품을 들이고 있다. 학교에서
는 시범교수와 교수참관, 교수
합평회 등을 통해 교원들이 지역
의 특성에 맞는 참신한 교수방법
을 창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학생들의 학파실력판정을 목
적지향성 있게 조직하여 그것이
그대로 교원들의 실력판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파외교육교양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것은 동포사회의 주목
을 끌고 있다.

지역청상회, 아버지회,
어머니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동포들이 학생들
의 학파실력을 높여주기 위
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
다. 동포녀성들은 《메아
리》, 《주머니회》, 《코
스모스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교원들이 학생들의 교수교
양에 전심 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학파실력은 서로 돋
고 이끄는 과정을 통하여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학교는 유치
반, 초급반, 중급반으로 구성되
여 있다. 이러한 설정에 맞게 학
교에서는 초급반과 중급반의 학
생들이 유치반 어린이들을 아끼
고 사랑하며 그들이 우리 말과
글을 잘 알고 살려쓰도록 도와
주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대로 학생들의
가슴속에 조선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높은 학습열의, 민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인재로 자라날
결심을 가지게 하는 의의 있는 계기
로 되고 있다.

부모들은 학생들 모두가 친형
제처럼 다정하고 화목하게 생활
하는 조선학교의 참다운 우월성
을 깊이 느끼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우리 말을 배우며 익히는 학생들(교포조선초급학교에서)



이 모든 것은 교원들과 동포들
의 기쁨과 자랑으로 되고 있다.

졸업생들도 모교로 돌아와 교
단에 서고 있으며 동포들은 민족
교육에 대한 궁지를 안고 자녀들
을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다.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가기
위한 동포들의 활동도 날이 갑
에 따라 활발해지고 있다.

조선학교를 동포자녀들이 다
니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형들
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로 꾸
려가려는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
에 떠받들려 도쿄조선제3초급학
교의 새 교사건설이 빠른 속도
로 추진되고 니시도쿄조선제2초
중급학교에 새 통학빠스가 마련
되었다.

이처럼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총련조직과 동
포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어 이역
만리에서 민족교육의 대가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사기자 최기철

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병원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자리잡고있는 김만유병원에는 일본 니시아라이병원 원장이었던 김만유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들어있다.

조국에 병원을 세우고싶어 하는 동포의 발기에 의하여 김만유병원은 주체75(1986)년 4월 13일에 개원되었다.

연건축면적이 10만m²인 병원은 7개 호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1호동에는 구급소생과와 입원치료실, 실험실들이 있으며 2호동에는 외래진단 및 검사실들과 질병에 따르는 전문파별 외래치료실, 먼거리의료봉사실, 수술장들, 혈관조영촬영실, 집중치료실들이 꾸려져 있다.

병원에는 소아과, 산부인과를 제외한 모든 전

문파들이 계통별, 장기별로 세부화되어 있다.

김현정원장은 《개원되어 오늘까지 병원은 전국각지의 환자들에 대한 전문파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였다. 그 기간 병원은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의료봉사의 질을 높일 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게 된다고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많이 받는다는 심장외과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복부외과, 외상정형외과연구실의 의료일군들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심장외과는 심장수술을 잘하기로 소문난 파이다. 그 근저에는 수십년을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조광호과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는 자신뿐 아니라 파성원들이 높은 의술과 함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안고 의료사업에 림하도록 하였다.

파에서는 판막치환술, 판막성형술을 비롯하여 대동맥판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 등 많은 수술들을 손색없이 진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저침습적인 심장수술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수술에 쓰이는 인공폐장, 인공판막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림상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술지표들을 얻었으며 치료에 도입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복부외과에서는 오래전부터 단공법에 의한 복강경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공식대로 한다면 복강경수술은 여러개의 구멍을 뚫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복부외과에서는 수술침습이 적고 회복속도도 빠른 단공법(한구멍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류영민과장과 조예림의사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복부외과에서는 단공법에 의한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담낭적출술, 소장종물절제술, S자상결장절제술 등에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단공포구를 국산화하여 수술에 이용하고 있다.

3년전 조예림의사와 함께 단공법에 의한 복강경수술에 참가하였던 어느 나라의 교수는 자기도 이 수술을 여러번 시도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말 놀랍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외상정형외과연구실에서 많은 수술재료들을 국산화하고 고신성형수술, 경추골절로 인한 전신마비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여 그들이 생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였다.

병원에서는 여러가지 난치성질병들을 수술적방법에 의거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들을 림상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병원이 개원되어 34년이 되었지만 의료일군들은 김만유동포가 지녔던 애국의 마음을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먼거리의료봉사소를 통한 의료사업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회진을 하고 있는 심장외과의 의료일군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절세위인들과 맷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하종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5돐을 뜻깊게 경축하게 되니 이즈음엔 저 멀리 조국의 하늘가만 때없이 바라보군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승엄히 안겨와 가슴은 끝없이 북받쳐오르고 6년전 이역만리길을 바래주던 조국인민들의 정겨운 모습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듭니다.

총련결성 65돐에 즈음하여 저는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의 한부분으로, 재일동포들을 어머니 조국과 한파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로 따뜻이 품어안아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정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싶어 이렇게 봇을 들었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수령이시였을뿐아니라 조국과 멀리 떨어져사는 우리들에게 혈연의 정을 맷어주시고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생을 주신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옹호하는것을 중요한 파업의 하나로 제시하신것도 그렇고 조국이 해방된 후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강령적서한 《재일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여 재일동포들도 조국의 품에 안겨 자자손손 복락

을 누릴 희망을 안겨주신것도 우리 재일동포들을 단순히 해외동포로 보신것이 아니라 한집안식솔로 여기셨기때문이였습니다.

아마 세상사람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에서 오랜 시간 재일조선인련락원을 만나주시고 군사작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재일동포들의 문제를 두고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는가에 대해서는 다는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주체적로선전환방침 제시, 그것은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정치리념에 앞서 이역동포들의 운명까지도 한몸에 떠맡아안으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최고발현이였습니다.

정으로 통하는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 법입니다.

사상이 정으로 통하고 정이 사상으로 승화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이 있어 마침내 재일동포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우고 주체44(1955)년 5월 25일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첫 산아인 총련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은 진정으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으며 재일동포들은 비록 일본땅 여기저기 흩어져살아도 조국의 한지붕아래

서 조국인민들과 마음도 숨결도 함께 하는 한집안식솔이 되게 되었습니다.

동포자녀모두의 학부형이 되시여 자본주의의 역땅에 주체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활짝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혈연의 정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이였습니까.

총련이 결성된 그 이듬해 일본땅 한복판에 조선대학교가 창립됨으로써 총련은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완비할수 있었으나 가장 큰 애로의 하나는 재정난이였습니다.

건설을 시작한 학교들이 자금난때문에 해를 넘기면서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있었고 그나마 조선대학교는 교사가 없어 우리 학교의 낡은 교실 몇칸을 빌려쓰고있었으며 지어 일본학교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학비도 대지 못하여 중도에서 그만두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46(1957)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액수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실줄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 우리 조국은 재일동포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시련을 겪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재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호소하신 때가 바로 그 시기였고 수령님께서 옹근 한해를 거의 공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신 때가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한푼의 돈이 그처럼 귀하였던 그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동포사회는 말그대로 격정의 도가니로 끓어번졌습니다.

이때부터 조국의 국가예산에는 세계금융력사

에 있어본적이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예산항목이 자리잡게 되였고 이 사랑의 생명수는 세세년년 우리 동포자녀들의 가슴속에 흘러들게 되였습니다.

지난 세기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격찬한 귀국의 배길과 조국왕래의 넓은 길이 열려지고 동포상공인들이 애국적상공인, 진보적상공인으로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명절이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조국을 떠나는 동포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주어야 한다시며 수백리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비바람속을 뚫고 되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지금도 저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너무도 감격에 겨워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는 나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울지 말고 웃자고 꽉씹어 이르시면서도 자신께서도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으시여 몇번이고 안경을 벗었다 다시 끼시며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깊은 영상이 승엄히 안겨옵니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인정미를 특징지으라면 저는 가장 뜨겁고 열렬하며 가장 폭넓고 옹심깊으며 한없이 자애롭고 다정한것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육친의 피보다 더 진한 정을 우리에게 주시여 재일동포들을 어머니 조국과 한파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로 품어안아주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다함없는 흄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105(2016)년 5월 9일은 조선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냉원파 의사에 의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뜻깊은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국에서 그이에 대한 칭송과 경모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리는 가운데 이역땅에서도 조국의 동포들이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지난 5월 8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채택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



조국의 기록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재중동포들

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의 일군들과 비전임일군들, 심양시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김영희국장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편지를 정중히 랑독하였다.

편지는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편지채택모임에서 최수봉

제1부의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4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갈피에도 우리 조국처럼 오늘과 같은 엄혹한 환경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을 이루한례는 없다. 이것은 오직 백전로장도 머리숙일 령장의 천품과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령도적수완,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만이 이루할수 있는 민족사적 공적이다.》라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



정을 기울이는 동포부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에는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부부가 있다.

그들이 바로 김련원, 박영모부부이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김련원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그의 어머니 길림지구협회 회장 황진생은 재중동포들뿐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도 알려진 선생이다.

수십년세월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대한 모심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은 물론 동포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황진생은 재중동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김련원에게 있어서 자기 모습을 비쳐보는 거울과 같은것이였다. 어린시절부터 그는 어머니에게서 집안의 애국적소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것은 물론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눈에 익혀왔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업으로 바쁘지만 늘 어머니일을 힘껏 도와주었다.

흔히 결혼전의 많은 짙은이들이 생활과 사업이라는 두 짐중에서 사업이라는 짐만 걸어졌지만 그는 양쪽어깨에 두 짐을 다 걸어지였다.

그는 중요계기마다 행사가 진행될 때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길림지구협회에 도움을 많이 주고있다.

결혼후에도 김련원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길림시공민들속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함께 손잡고 풀어나갔고 그래도 곤난에 부닥치면 련판부

추어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통일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조국인민들과 우리 해외동포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민

족적대경사라고 토로하면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민족의 성원이 된 궁지를 안고 조국의 룽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출기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



문들을 찾아가 최선을 다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길림시에 온 조국대표단 성원들의 생활도 레외가 아니였다. 얼마전에도 그는 악성전염병으로 하여 길림시가 위험지대로 지정된데 맞게 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일상생활용품을 마련해주었다.

남편인 박영모도 그를 적극 도와나섰다. 늘 안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가 내놓는 제안이 더 잘되도록 한가지라도 보태주고 있다. 그리고 일이 잘되어 칭찬을 받으면 그 모든 성과를 안해의 공로로 여기며 축하의 인사를 남먼저 보내주곤 하는 그였다.

하기에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이들부부를 동포들의 자랑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

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자력변영의 창조물 순천린비료공장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토프를 끊으시였다》를 시청하였다.

본사기자

판 이 한 태 도

개인이나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친숙하게 지내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면 마땅히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거기에 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도이췰란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범국이었던 도이췰란드는 전후 전쟁책임을 국가의 명의로 정식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세기 50년대에 현재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쟁희생자에 한해서는 누구에게든지 배상을 할데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도이췰란드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련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쟁희생자뿐 아니라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까지 배상할 것을 국제사회 앞에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도이췰란드는 그후부터 2004년 1월까지의 기간에 세계 80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강제로동피해자 151만 6 000명에게 27억 3 800만 €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지불을 더욱 늘리려는 립장을 표명하는 한편 강점지역들에서 랴탈해갔던 문화재들도 반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치스사상을 고취하는 신나치스분자들의 준동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

였으며 새 세대들과 자국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수치스러운 파거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그 나날 도이췰란드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도이췰란드군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학살한 곳을 돌아보았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이췰란드 수상도 도이췰란드 남부에 위치한 나치스 강제 수용소 자리를 공식 방문하였다.

사실들은 이 나라가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에 비해 볼 때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우선 일본은 과거죄행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도이췰란드에 못지 않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끓어한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사만 보아도 전대미문의 범죄사이다.

일제는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조선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 자원략탈지 등으로 삼고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1905년 《을사 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근 반세기

동안 포악한 민족말살, 랴탈정책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기간에 840만여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강제연행, 랍치하여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살륙하였다. 더우기 20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끌어다가 정조와 청춘을 짓밟고 무참히 학살한 만행은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일본이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극악한 죄행은 백번 무릎을 끓고 빌어도, 일본렬도를 통채로 팔아서 갚아도 다 배상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철면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한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일제가 침략한 침략과 전쟁행위를 아시아인들을 위한 《정당한 행동》,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분식하고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계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느니 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다면 범죄를 뉘우치고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방으로 변호하며 한사코 정당화하는 일본의 과권치하고 후안무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0)

강원도의 특산—안변감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강원 도지방은 감이 잘되는 고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원도 안변군의 감이

소문이 났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강원도의 해안가지방이 감의 산지로 소개

되어 있다.

안변지방의 감가운데서도 단감품종의 하나인 《안변찰감》이 유명하다.

감의 질량은 보통 90~100g이며 열매껍질은 얇고 열매살은 부드러우며 물이 많다.

감은 그대로 혹은 꽃감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잎으로는 차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감껍지에는 포도당, 탄닌 등이 있어 약재로도 널리 쓰인다.

감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붉게 익은 감을 홍시,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준시, 껍질을 벗겨서 꼬챙이에 꿰여 말린 것을 견시(꽃감) 등으로 불렸다. 가을이면 강원도의 어느 마을에서나 꽃감을 만들고 있는데 그 풍차 또한 이채롭다.

안변감은 오늘 이름난 지방 특산물의 하나로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치한 행위의 리면은 무엇인가.

언제인가 이전 도이췰란드 대통령은 《과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번은 과거를 되풀이 한다.》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현실이 이 말을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 일본은 누가 뭐라고 하든 시간을 끌면서 재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과

거부정, 현법개악, 령토강탈,

군사대국화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는 일제의 과거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힘을 키우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

국주의사상으로 길들여 해외침략에로 내몰아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흥계가

깔려있다.

오늘 인류의 량심은 범죄적인 과거에 대해 도이췰란드와 판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경고하고 있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자에게 차례지는 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라고.

본사기자 최기철

알록반죽자기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는 조선의 도자기를 사랑하며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포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고려(918년~1392년) 시기의 도자기는 당대 사회뿐만 아니라 세 세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도자는 점토, 장석, 규석, 도석 등의 무기 물질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섞어서 성형한 다음 높은 온도에서 소성하여 만든 공예품입니다.

우리는 이번호에 고려자기의 하나인 알록반죽자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록반죽자는 고려 말기에 독특한 자기공예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이것은 원가와 품이 많이 들어 그 생산성이 높지 못할 뿐 아니라 값도 매우 비쌌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알록반죽자는 근 800년간 자기의 신비로운 모습과 기묘한 제조술을 후세에 전하지 못하여 왔다고 합니다.

허나 오늘 70고령의 유관준로인에 의하여 부피두터운 려사기록책에 두줄밖에 남기지 못하였던 알록반죽자가 자기의 모습을 다시 찾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고 있는 그는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경성도자기공장에서 일할 때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의 하나인 알록반죽자의 옛 모습을 되살릴 것을 결심하고 33년간이나 연구를 심화시켜나갔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첫 알록반죽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을 때 마치 선조들이 땅속에서 달려나와 자기를 얼싸안는 것만 같아 그 기쁨을 어디에 비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그는 제조

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조선화기법 장식을 창작하여 알록반죽자기제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지금 유관준로인은 함경북도 미술창작사 실장인 아들을 비롯한 온 가족과 함께 알록반죽자기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록반죽자는 조형예술적 형상에서 무한한 공간감과 살아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환상적이고 섬세하면서도 째여 있는 무늬구성과 함께 물결, 바람, 구름과 같은 알록선의 흐름 등으로 하여 귀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도자기생산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기 위해 잠시 그 려사를 거슬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는 중석기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점토를 빚어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도자기생산의 시초로 되었습니다. 그후 질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점차 발전하였으며 특히 B.C. 3세기에는 질그릇에 여러 가지 색칠물을 입히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자들은 그 매장량이 풍부한 도자기원료들을 가지고 벌써 신석기시대에 질그릇을, 7세기 중엽~9세기에는 높은 기술로 사기그릇을 만들었습니다. 10~12세기에는 독특한 원료배합비율, 소성온도조절 기술 등을 적용하여 세상에 자랑할 만한 고려자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로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알록반죽자를 만드는 비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록반죽자는 자연의 색

조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독특한 자기공예로서 그것을 만드는데 두 가지 비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학적비방입니다. 흰색, 청색, 적색을 나라내기 위해 고령토, 철성분이 많은 적토, 철성분이 적은 적토를 쓰는데 그 배합비율이 기본입니다. 세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맞지 않으면 소성로에서 구울 때 수축, 팽창결수가 차이나므로 자기가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소성은 반드시 소나무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송전에 의해 일어나는 불길이 제품에 골고루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예술적 형상 즉 창조과정에 있습니다.

바람, 노을, 안개, 물결, 년륜 등은 3가지 이상의 색원료를 섞어 지침모양으로 겹겹이 쌓아 비틀어놓고 성형할 때에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문양을 조화롭게 형상합니다.》

만약 동포여러분이 유관준로인이 모처럼 알려준 제조비방에 대해 다소 리해하였다면 알록반죽자기제조술과 조선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귀물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그가 창작한 《호로형 알록무늬병》, 《칠보산명 소알록자기꽃병》, 《각형년륜 장식 알록자기꽃단지》를 비롯하여 7점이 국보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주체 107(2018)년에 국가비물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알록반죽자는 앞으로 도자기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인기가 높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력사인물

참대화가 류덕장

조선 봉건 왕조시기 화가들 중에는 참대화가로 유명한 류덕장(1694년~1774년)도 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우수한 기법을 이어받아 참대를 잘 그렸다.

나이 80이 되어서도 참대를 계속 그렸지만 그의 필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류덕장의 참대그림들은 수묵으로 그려졌으나 대상에 충실하였고 필치가 정확한 것으로 하여 형상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있다.

그는 일반적인 참대그림에서 볼 수 있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여러 정황 속에서의 각이한 참대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는 작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조건과 함께 각이한 정황에 놓인 참대의 다양한 형상들을 묘사함으로써 도식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곧게 자라는 참대의 특성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는 창작에서 수묵화로 참대만을 그린 제한성이 있으나 당시 참대그림에서는 그를 따를만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6폭, 8폭으로 된 참대병풍들과 《대》, 《참대》, 《눈맞은 대》 등 수십점에 달하는 그의 작품들은 지금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 *

류덕장의 작품 《눈맞은 대》(왼쪽)와 《대》(오른쪽)



평양의 만경대

만경대는 예로부터 평양8경과 함께 명승지로 이름높은 고장이다.

만경대주변의 높고낮은 봉우리들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만경봉이라 부른다.

선조들은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일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하여 그 이름을 만경봉이라 지었고 그 기슭에 아득히 들어앉은 마을은 만경대라고 불러왔다.

만경대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 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이면 만경봉은 꽃동산을 이루며 질은 향기를 내뿜는다. 특히 만경봉에는 진달래와 목란꽃이 만발하여 이곳의 풍치를 돋구어준다.

그런데로부터 옛날 타고장의

부자들과 량반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탐내여 좋은 터들을 경쟁적으로 사가지고 조상의 묘를 많이 썼다고 한다.

만경대의 아름다운 경치는 예로부터 화촌10경으로 널리 알려졌다. 화촌은 꽃이 만발하는 만경대와 그 주변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화촌10경에는 만경대의 봄경치(만경상춘), 세 섬의 달밤정경(삼도범월), 봉포에서의 고기잡이(봉포타어), 우산에서의 소방목(우산목독) 등이 속하였다.

옛 문헌들에서는 화촌10경을 『평양일대의 산수치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으나 화촌일대야말로 그 경치에 최고』이며 특히 만경대와 같은 절경을 두

고 『나라안에 이만한 곳이 다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많은 문인들도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는데 18세기 평양의 재능있는 향토시인이었던 리시항은 『만경대에 올라』라는 시에서 비취색구름속에 솟은 만경대의 자태를 시에 담자고 하니 보면 볼수록 더더욱 아름다워 차마 시구절을 찾을수 없다고 하였고 당시 실학자문인으로 유명했던 홍량호 역시 시 『만경대』에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어떤 명승지도 『동방조선의 유품』인 만경대에는 비기지 못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서학순

상식

색깔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

색깔은 사람의 정서, 사유 등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실례로 푸른색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되고 평화로운 기분에 점기게 하고 붉은색은 열정과 활력을 가지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밝고 아름다운 색채를 좋아하고 로인들은 은근한 색채를 좋아한다. 이것

을 통해 색깔이 사람들의 나이에도 관계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색깔은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살림집의 방안벽에 붉은색을 칠하면 여름에는 더욱 무더운감을 준다. 또한 좁은 방안에 있는 가구들에 모두 붉은색을 칠한다면 방안이 더욱 비좁은 느낌을 주게 된다.

대체로 붉은색물체는 푸른색물체보다 더 가깝게 보이며 자극적이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심리학자는 붉은빛아래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색깔의 빛아래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반응속도가 더 빠르지만 임무를 완성하는 효율은 낮다고 말하였다.

* * *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6)

- 안변보현사 -



명부전

안변보현사는 강원도 안변군 영신리의 황룡산에 있는 절이다.

절은 8세기 중엽에 처음 세우고 16세기에 다시 지었다.

안변보현사는 원래 중심건물인 보광전을 비롯하여 1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으나 지금은 보광전, 응진전, 점화실, 극락전, 명부전, 일주문 등이 남아있다.

보광전은 높이 약 2m되는 밀단위에 서있다. 밀단은 화강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올렸으며 앞쪽 가운데에는 여섯단짜리 돌층계가 있다. 돌층계좌우에는 돌사자가 놓여있다. 돌사자

는 두 앞발을 곧추 세우고 대가리를 쳐들어 매우 용맹스러운 느낌을 준다.

보광전은 정면 3간, 측면 2간이며 주추돌우에 흘림기둥을 세웠다. 네 모서리기둥은 가운데기둥들에 비하여 통이 굵게 하면서 5cm정도 더 높이고 밑둥을 조금씩 밖으로 내다가 안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게 세웠다. 이는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특징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두공은 바깥 5포, 안 7포로 하고 제공에는 손바닥에 꽂송이를 받쳐든것과 같은 생동한 련꽃무늬를 새겼다. 두공우에는 합각지붕을 얹었으며 집안의 바닥에는 널마루를 깔고 그 가운데에는 불단을 만들었다.

이밖에 응진전과 명부전, 극락전과 점화실도 자기의 고유한 건축미를 잘 살리고있다.

안변보현사의 건축물가운데서 유명한것은 일주문이다. 이 문은 보현사에 들어서는 첫문으로서 큰 주추돌우에 서있다.

그리고 보현사앞에는 이 절간을 처음 지을 때 만든것으로 전해지는 홍예다리가 있다.

안변보현사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예술적기량이 반영되어있는 귀중한 건축유산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보광전의 천정장식과 외부



명승－송암동굴

평안남도 개천시의 서남동에 자리 잡고 있는 송암동굴은 고회암층이 오랜 기간 용해,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 자연동굴이다.

천태만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송암동굴에는 폭포동, 기암동, 설경동, 수림동, 보물동, 장수동, 룽궁동, 풍년동을 비롯한 17개의 동에 70여개의 황홀하고 신비로운 명소들이 있어 마치도 지하궁전을 방불케 한다.

지하《금강》의 대문인 금강돌문을 지나 꽃문동(관문동)

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막냉이돌폭포》이다. 이 폭포는 송암동굴의 네형제 폭포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것이다.

3만여년생 돌폭포로서 신통히 도 금시 멀어지던 물줄기가 그대로 굳어진것 같아 볼수록 상쾌하다.

폭포동에서는 장쾌한 화음을 내는 메아리폭포, 높이가 수m나 되는 아름다운 은하폭포와 처녀폭포라고도 불리우는 비단폭포를 비롯한 폭포들과 금봉

역파 다시마, 송이버섯 등 다양한 모양의 돌순파 돌고드름들의 이채로운 광경을 볼수 있다.

기기묘묘한 바위들로 신비경을 펼쳐놓은 기암동에는 그럴듯한 이야기거리를 안고있는 독수리바위, 비둘기바위, 흰물개바위며 수천수만의 겹파방패바위, 하나가 4.2m의 길이에 1.9t의 질량을 가진 두개의 《장검》과 《룡마》바위 등이 있어 볼수록 장관이다.



여러가지 모양의 돌순파 돌고드름들

설경동의 희한한 서리꽃바다
와 장미꽃, 복숭아꽃, 살구꽃
을 비롯한 지상의 온갖 꽃들이
다 모여 백화원을 이루어놓은

《무릉도원》이라는 명소는 얼
마나 황홀한지 모른다.

그리고 별무리 흐르는 은하

동의 유난히 빛나는 《북두칠
성》과 배를 그려안고 가야 한
다는 웃음동(만劫동), 《서리
꽃궁전》 등 수많은 명소들이

신비경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렇듯 지하의 독특한 자

연미와 풍치를 자랑하는 송암

동굴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 관광객들이 해마다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주체108(2019)년 촬영



진실한 스승

우륵은 6세기 초엽에 가야금이라는 민족악기를 만들어냈으며 가야금곡들을 창작하고 많은 후비들도 키워 우리 나라 음악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음악가이다.

우륵의 제자들중에서 계고, 법지, 만덕은 음악적재능이 남달리 뛰어났었다.

그들은 스승이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을 헤아릴만큼 총명하였을뿐아니라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하여 탐구와 열정을 기울이는 노력가들이였다.

그래서인지 우륵은 이들을 더없이 총애하였고 자기의 음악지식과 연주기술을 깡그리 넘겨주기 위하여 노력과 진심을 바치였다.

우륵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세 제자의 기량은 날을 따라 발전해갔다.

어느덧 세 제자는 스승의 창조물인 12곡의 가야금곡들을 능란하게 연주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자신이 스승이 되여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가야금을 가르쳤다.

그러던중 세 제자들은 12개의 가야금곡들을 매일같이 연주하고 전습주는 과정에 곡조들에 내포된 여러가지 부족점들을 가려보게 되었다.

스승의 12곡은 가야국의 여러 지방의 특유한 풍속적인 음악들에 기초하여 창작한것들이였는데 이젠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다보니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배운 음악지식과 기량을 시험도 해볼겸 12곡을 개작정리해보기로 하였다.

그들은 우선 12곡중에서 사람들과의 교감이 좋은 우수한 부분들을 살리면서 너무 가락이 잦아 번잡스럽거나 또는 지루

하고 흥겨운 맛이 없는 부분들을 대답하게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지혜를 합쳐 좀더 우아하고 고상하며 품위가 있는 가락들을 보충하고 다듬으면서 다섯곡으로 묶어보았다.

어느날 조용한 기회에 세 제자는 스승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생님,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람되게 선생님의 심혈이 담겨진 그 열두곡의 음악을 다듬어 다섯곡으로 만들어보았나이다.》

우륵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게 어떤 음악들이었던고, 대가야의 궁궐에서부터 신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환영을 받았던 음악이였다. 그 음악으로 사람

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었고 그 음악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하였었다. 그런 음악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우륵은 괴롭고 쓸쓸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성큼 일어나 자기의 가야금을 계고에게 내주었다.

어느덧 가야금연주가 끝났다.

스승의 판결을 기다리며 머리를 들던 제자들은 《쿵》하고 내려앉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그때까지도 스승은 두눈을 감은채 굳어진듯 앉아있었던 것이다. 스승의 눈에는 이슬이 고여있었다.

이윽고 우륵의 두눈이 번쩍 띠었다.

《이 사람들, 참 장하이. 다른 자네들을 보니 내 이제 눈을 감는다 해도 한이 없을가 하네. 자네들이 만든 이 다섯곡이 야말로 열두곡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다고 보네.》

《예?! 선생님, 그러면 저희들의 음악을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오이까?》

《허허, 찬성하고말고가 있나. 사람의 마음을 한껏 즐겁게 해주면서도 지나치게 흥청거리지 않고 애조를 띤 가락들도 구슬픈 느낌을 주나 너무 비통하지 않아 참말로 옳은 음악이라고 할수 있네. 이제부터 궁중에서 쓰는 가야금음악을 이 다섯곡으로 하세.》

《선생님!》

제자들은 스승의 아량있고 진실한 마음이 너무도 고마워 우륵의 무릎에 엎어지며 흐느껴울었다.

그러는 제자들의 어깨를 쓰다듬는 우륵의 얼굴에서도 제자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스승의 사심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 * *

천연기념물

창도늘어진 소나무

강원도 창도군에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창도늘어진소나무가 있다.

1580년경에 심은 이 소나무는 이름그대로 가지들이 늘어져있다. 제일 긴 가지는 동쪽

뿌리목둘레는 3.5m이다. 원대는 12m높이까지 끈게 자라고 일정한 높이에서부터 10여개의 가지가 쳐서 사방으로 퍼져 늘어져있다. 제일 긴 가지는 동쪽으로 늘어졌는데 길이 16.6m이고 땅위에서부터 2m높이까지

내리드리워져있다.

소나무의 변종으로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창도늘어진소나무는 사람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자아내고있다.

* * *





금강산의 만물상 본사기자 김춘혁

예로부터 돌이 만가지 재주를 부리고 물이 천가지 재롱을 피운다는 조선8경의 하나인 금강산의 만물상이다.

이름그대로 만가지형태의 물체들을 한곳에 모아놓은듯 한 그 모습이 하도 신비로워 하늘의 흰구름도 거대한 층암질벽을 쉬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

